제 1 강 정신분석과 근대

◆『안티-오이디푸스 L'anti-Oedipus』의 기본 성격들

※학습목표
『안티-오이디푸스 L'anti-Oedipus』의 기본 성격을 이해한다

▲ 우정의 화학반응
『안티-오이디푸스 L'anti-oeipe』(1972)는 들뢰즈-가따리의 책입니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 '들뢰즈-가따리'란 저자명이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와 펠릭스 가따리(Flix Guattari, 1930-1992) 두 사람을 지칭하는 줄 몰랐습니다. 마치 '사이먼과 가펑클'이 '사이먼'과 '펑클'인지, '사이먼 가펑클'인지 잘 몰랐던 것처럼, 이상하게 '들뢰즈-가따리'란 저자명은 화학 결합물처럼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최초의 오해가 제대로 된 이해일지 모르겠습니다. 『안티 오이디푸스』는 철학사가 질 들뢰즈와 정신의학자 펠릭스 가따리 두 사람의 공저가 아니라, 들뢰즈라는 분자와 가따리라는 분자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들뢰즈-가따리의 책이라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삶의 기술
미셸 푸코는 『안티 오디이푸스 Anti-Oedipus』 영역판 서문에서 이 책을 "불어로 쓰여진 최초의 윤리학 책"[1]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헤겔류의 '철학'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복수성', '흐름', '종합', '배치'와 같은 추상적 개념들이 우리의 철학적 신경을 긴장시키지만 그것은 진리(Truth)의 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의 방법을 가리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기술(art)에 관한 것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책에 '사용'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이 책의 다양한 문체를 꿰뚫는 일관된 구문법입니다.

▲ 정신분석학의 필연적 결말, 니힐리즘
이 책의 제목은 니체의 『안티크리스트』에서 온 것이긴 하지만 단순한 제목의 차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날에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의 예수가 정신분석에서는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표상되는 기독교 정신(자책, 연민, 죄의식)의 니힐리즘이 오이디푸스에 담겨 있는 무의식적인 죄의식, 애정의 니힐리즘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정의 니힐리즘. 정신분석학은 애정 대상의 상실을 다룹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애정이 억압됨으로써 신경증에 걸린다는 것이 정신분석학의 핵심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 애정의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상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말은 좌절의 필연성, 완전한 대상의 획득 불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욕망으로 구조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이 애정의 결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니힐리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믿음의 차원으로서의 정신분석학
정신분석학에서 기독교 고유의 개념인 원죄는 무의식적인 근친상간의 죄로, 실낙원은 근본적인 대상의 상실로, 성모는 아버지, 성부는 어머니, 그리고 성자는 아들이 됩니다. 라깡에게 있어서 신의 말씀은 상징계이며 신의 정신 즉 성령은 상상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매듭점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남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개념은 인간의 한계성이며 인간의 전제 조건을 결핍에서 찾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들뢰즈-가따리는 '안티 오이디푸스'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욕망하게 만드는 것은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정신분석학은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 욕망의 근거에 대한 믿음의 차원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학은 신앙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
그렇다고 해서 들뢰즈-가따리가 오이디푸스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이디푸스는 자본주의적 욕망 속에

있고 가족주의 속에 있고 아주 공고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오이디푸스가 허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실제적 힘을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종합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이디푸스로 구조화된 욕망이 파시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혹은 권력자에 대한 욕망과 같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한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삶의 기술을 명령문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욕망기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국가, 법, 재앙 그리고 거세와 결여의 부정신학을 믿지 말아라. 사랑을 갈구하지 말고 사랑하는 힘을 가져라. 그리고 권력에 매혹당하지 말고 능력을 가져라. 친구가 친구에게 던지는 명령의 기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1) Gilles Deleuze and Flix Guattari, Anti-Oedipus, trans. Robert Hurley, Mark Seem, Helen R. Lane, London : The Athlone Press, xiii

◆ 욕망과 욕망하는 기계

※ 학습목표
욕망과 욕망하는 기계를 이해한다

▲ 욕망하는 기계의 발견
프로이트가 살펴본 히스테리 환자들의 발작하는 살, 강박신경증자의 강박행동, 정신병자들의 망각과 환상, 꿈과 말실수, 일차 세계대전과 소비에트 혁명, 나아가 문명 자체 속에 '욕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프로이트의 발견이며 프로이트는 이를 정신분석의 이름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욕망기계에서 비인간적인 얼굴을 보고 말았고 그 후 이 욕망기계를 버리게 됩니다. 들뢰즈-가따리는 프로이트가 버린 비인간적인 욕망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욕망기계는 마약중독자이고 동성애자이고 정신병자였습니다. 들뢰즈-가따리는 이를 인간의 얼굴로 분장시키지 않았습니다. 즉 해석하지 않았으며 감금하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명자본주의를 폭파시킬 혁명의 기계로 그들을 불러 들였습니다.
들뢰즈-가따리의 작업은 정신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작업은 분열을 분석하는 분열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욕망과 욕망의 표상
정신분석은 욕망을 발견했습니다. 욕망을 발견했다는 말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 이전의 사람들이 욕망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아무리 욕망을 억압했다 하더라도 그런 만큼 욕망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까지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욕망은 따로 발견될 만큼 숨어 있지도 않습니다. 욕망은 널려 있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사랑에 대한 욕망, 신을 향한 욕망, 땅을 향한 욕망, 지식에 대한 욕망, 유희에 대한 욕망… 인간의 삶 전 부면에 널려있는 욕망을 오직 프로이트만 발견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프로이트는 단적으로 욕망 자체를 최초로 찾아낸(dgager) 사람이다"(441[2])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욕망을 '욕망의 표상'으로부터 분리시킨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욕망의 추상화
1895 년「과학적 심리학 초고」에서 프로이트는 "심리학을 자연과학의 범주에 편입시키려는" 야심찬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과정을 양적으로 결정된, 구분 가능한 물질적 입자의 상태로 나타냄"[3]으로써 욕망의 표상들이 갖는 질적 다양성을 추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히스테리환자의 욕망이든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 농담을 하면서 느끼는 쾌감이든 성관계를 하면서 느끼는 쾌감이든 모두 동일한 물질적 입자의 양적 운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양'(Q 나 Q'η 으로 표기된 양量)이라는 개념을 단위명사(어떤 것의 양)가 아니라 "양(Q)을 벗어버린다"라거나 "양(Q'η)의

수용을 전적으로 거부한다"처럼 보통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런의 흥분이 유동적인 양"(216)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양은 뉴런에 투여된(besetzt) 에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뉴런에 투여되어 뉴런을 흥분시켰다가 뉴런들 사이의 접촉에 의해 흐릅니다. 그것은 신경생리학적으로는 '자극'으로 나타나고, 물리학적으로는 열량이나 힘으로 측정되며, 경제학적으로는 욕망(가치)의 원천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함께 쓰인 '투여'(Besetzung)라는 단어 역시 자극이 '집중'되거나 에너지가 '공급'되거나 가치의 원천(자본)이 '투자'되는 것 등 다양한 함의를 갖습니다. 덧붙여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영토를 점유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욕망의 에너지는 특정한 영토를 점유하기도 하고 재빨리 경계와 장벽을 넘어 다른 영토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 표상 질서의 붕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정식화하면서 이 추상적 '양'에 리비도(Libido: 욕망, 갈망)라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리비도는 일차적으로 양적인 개념입니다. 프로이트는 성적 흥분 영역에서의 변화 과정을 리비도의 양적 생산, 분배, 소비 과정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과정을 리비도 경제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로이트가 리비도 경제학을 통해 욕망 자체의 일반적 생산원리를 수립한 것은 "리카드로가 표상 가능한 모든 가치의 원리로서 양적 노동을 발견함으로써 정치적, 혹은 사회적 경제학이 기초를 세운 것"(441)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 과학적 심리학과 다른 학문들과의 연관성
프로이트가 「과학적 심리학」의 근본원리를 수립할 때 그 원칙은 19세기의 새로운 경험과학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리비도의 양적 축적과 방출의 원리는 근대 경제학의 원리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리비도의 저장과 외부자극의 제한은 생물학의 원리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리비도의 기호작용은 근대 언어학의 원리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한계는 동시에 근대 경제학, 생물학, 언어학의 한계이며, 들뢰즈-가따리가 추구하는 바 정신분석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은 근대의 경제학, 생물학, 언어학의 한계를 돌파하는 과정입니다.

▲ 추상적 생산과 자본주의
근대적 에피스테메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표상의 에피스테메로부터 어떤 단절을 성취했으며 그 단절로부터 어떤 가능성이 출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절과 가능성은 표상분석을 대신한 생산의 종합에 있습니다. 고전주의 표상의 질서를 붕괴시킨 것은 생산의 힘과 의지였습니다. 프로이트가 욕망의 일반법칙을 리비도(양) 경제학에서 찾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리비도(양)의 축적과 분배와 방출(소비)의 메커니즘, 즉 리비도 생산의 메커니즘이지 표상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과학적 심리학 초고」에서 표상들은 단지 양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체 내부, 혹은 외부의 자극 유도자일 뿐 그 자체 욕망의 형성자가 아닙니다. 욕망의 생산으로서 리비도 경제는 각기 다른 질적 내용과 구체적 영역을 갖는 표상의 질서와 분리된 채 독자적인 생산 법칙을 갖습니다.
그 생산의 법칙은 일차적으로 추상적입니다. 그것은 표상들이 갖는 제한적 특성들 너머에 있는 일반적 요소를 추출합니다. 리카르도가 각기 다른 유용성을 갖는 재화들의 제한적 특성들 속에서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일반적 본질을 추출하는 것처럼, 프로이트는 각기 다른 영역과 대상과 목표를 갖는 욕망의 표상형태들 속에서 동일한 양적 리비도의 생산물이라는 일반적 본질을 추출합니다. 그들이 가치와 욕망의 일반적 원천을 추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치와 욕망이 갖는 추상성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각기 다른 유용성을 생산하는 각기 다른 생산활동의 질적 차이를 제거합니다. 오직 화폐라는 동일한 척도로 계산할 수 있는 양적 가치가 교환의 척도가 되고 그런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표준화되고 양화된 노동이 생산을 조직합니다. 리카르도의 노동가치론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탈숙련화된 평균적 노동의 산물이지 반대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프로이트가 양적 리비도의 경제학으로 욕망 자체의 생산법칙을 추출한 것은 자본주의의 욕망이 그만큼 추상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 욕망의 주체화
표상으로부터 분리된 욕망은 주관적, 혹은 주체적(subjective)입니다. 표상(관념)은 물론 인간의 것입니다. 그러나 표상은 대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의 감각과 관념에 도달하지 주체로서, 생산자로서의 인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18 세기 말 이전에 '인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355)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17, 18 세기 표상의 질서는 물론 인간 이성의 분석 활동으로 수립된 것이지만 그 표상의 질서는 자연의 질서를 투명하게 반영한 것이었지 인간의 주체적, 주관적 생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주체로서의 인간, 말하는 존재로서 언어를 생산하고 생명체로서 생명을 생산하며 노동하는 동물로서 가치를 생산하는 인간은 이 고전주의적 표상의 질서가 붕괴되고 나서야 출현했습니다. 인간이 욕망의 생산자로, 욕망이 생산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만큼 욕망의 생산은 주체적이 됩니다. 프로이트의 리비도 경제학이 융의 신화적 상징주의와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융의 상징주의가 표상의 객관주의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이해된 신화의 특수성은 리비도의 주체적 태양 볕에 녹아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444) 욕망은 분명 표상되는 것이지만 그 표상은 주체적 생산의 산물이지, 객관적 표상의 반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대의 신화에 나타난 욕망의 표상에 객관성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생산되는 욕망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표상되는 욕망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 인간과 무의식의 출현
인간이 욕망 생산의 주체로 파악된다는 말은 인간의 의식이 주체의 작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은 표상의 작인이지 생산의 작인이 아닙니다. 표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출현한 '인간'은 표상을 형성하고 분석하는 존재, 즉 '사고하는 존재'(res cogitans)가 아니라, "하나의 생물이요, 생산의 도구요, 자기에 선행하는 단어들의 운반수단"(「말과 사물」, 360)으로서 "생명, 생산, 언어의 법칙에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은 생명과 노동과 언어의 담지자이고 그 사물들의 법칙을 표상하는 존재이지만 그 표상은 더 이상 의식에 의해 분석되는 표상이 아니라, 사물의 법칙을 따르는 무의식적 표상입니다. 실증과학(생물학, 경제학, 문헌학)의 토대 위에서 사물의 제 법칙이 개별 인간과 인간 사회에 표상되는 방식을 연구하는 인간과학(심리학, 사회학, 문학)은 "가장 근본적인 대상으로서의 무의식적인 것을 해명함으로써, 이미 명백하게 사고된 것 속에서도 여전히 사고되어야 할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말과 사물」, 424) 즉, 무의식은 프로이트의 천재성이 발견한 정신분석의 전유물이 아니라 근대의 인식론적 배치 속에서 인간학과 함께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

2) 쥘르 들뢰즈·펠릭스 가따리, 최명관 역, 『앙띠 오이디푸스』, 민음사, 1994.
3) 지그문트 프로이트, 임진수 역, 『정신분석의 탄생』, 열린책들, 2005, 215 쪽.

◆ 근대의 욕망과 욕망의 기계적 생산

※학습목표
근대의 욕망과 욕망의 기계적 생산을 이해한다

▲ 생명생산의 원천으로서의 욕망
진화론적 언명으로서의 생명의 무의식, 사회적 생산의 무의식, 언어의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프로이트와 같은 무의식입니다.
들뢰즈-가따리에 의하면 인간학과 동시에 출현한 19 세기의 무의식은 인간의 욕망생산의 각기 다른 체제와 표현일 뿐 근본적으로 같다고 말합니다. 욕망의 생산은 사회적 생산의 원천이고 기호 생산의 원천이며 생명생산의 원천입니다. 욕망의 생산주체는 표상의 주체, 의식의 주체, 관념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생산 혹은 기호적 생산 혹은 생물학적 생산을 총괄하는 주체입니다. 맑스의 개념으로는 물질적 생산이며 프로이트와 융의 개념으로는 무의식적 생산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의식의 관점이 아닌 무의식의 관점에서의 생산은 관념론의 산물이 아니라 유물론의 산물입니다. 유물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의식의 욕망이란 주체로서의 욕망생산과 같은 말입니다. 욕망은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해지기 보다는 생산하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들뢰즈-가따리는 욕망생산을, 욕망의 생산이 아니라 '욕망하는 생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 욕망의 기계적 생산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이 표상의 질서로부터 떨어져 나와 생산의 과정에 진입할 때 나타나는 욕망의 추상성, 주체성, 무의식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이 남았는데, 그것은 욕망의 기계적 성격입니다. "기계는 욕망하는 것이 되고, 욕망은 기계화된다. 욕망은 주체 속에 있지 않고, 기계가 욕망 속에 있다"(421)는 말은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욕망과 기계를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욕망은 인간, 아니 백번 양보해서 생명체에 고유한 것인데 어떻게 무생물체인 기계가 욕망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욕망의 생산이 기계적 생산일 수 있다는 말인가?

▲ 고전주의 기계론
욕망생산의 기계적 성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두 번의 단절이 요구됩니다. 먼저, 데카르트의 기계론과 린네의 박물학을 동시에 감싸고 있는 고전주의적 에피스테메와의 단절이 요구됩니다. 이 표상의 에피스테메 속에서 기계는 생명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의 선은 '사고하는 존재'(res cogitans)와 '연장된 존재'(res extensa) 사이에 그어집니다. 사고하는 존재로서의 이성을 제외한 인간의 신체 역시 동물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기계로 파악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계적'이라는 단어에서 필연적 메커니즘, 수학적 규정성, 구조적 통일성 따위의 의미를 떠올리는 것은 고전주의 에피스테메의 잔영입니다. 이런 기계론의 관점에서 보면 유기체 역시 복잡하지만 구조적 통일성을 지닌 완벽한 기계입니다.

▲ 근대의 생기론
19 세기 근대의 에피스테메는 이 일반수학의 분류공간이 파괴되면서 출현했습니다. 분류학적 공간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구분선이 생겼는데, 그것은 생명과 무생물(기계) 사이에 확고히 그어졌습니다. "큐비에 이후로 분류의 외부적 가능성에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은 비지각적이고 순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생명"(『말과 사물』, 315)입니다. 이제 생물은 연장의 속성을 갖는 존재의 일반적 규정을 벗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생명의 본질은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인과적 필연성과 구조적 통일성을 항상 벗어난다는 점에서 찾아집니다. 생물학이 출현한 이래 생명체는 그 가시적 형태가 아니라 비가시적인 기능들의 통일체로 규정되고, 무생물은 유기체가 자신의 개체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흡이나 영양섭취 등 생명기능의 수행과정에서 부단히 상호 작용해야 할 외부 환경에 자리잡게 됩니다. 18 세기의 생기론 vitalisme 은 17 세기의 데카르트가 했던 것을 뒤집어서 이번에는 기계 역시 유기체의 기관이 연장된 것으로 보거나 기계의 구조적 통일성을 유기체의 기능적 통일성으로 환원시켰습니다. 19 세기 초반 후기 낭만주의 소설에서 생기론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자동기계인형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계 낳는 기계?
기계적 신체가 재생산 능력까지 갖춘 것은 카렐 차펙의 「RUR」(1920)에 와서입니다. '로봇 Robota'(체코어로 '노역')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이 희곡에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창조된 자동기계들은 비용의 절감(자꾸 다른 기계에 말려 들어가니까)을 위해 자기보호 기능까지 부여받게 되고 종국에는 인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사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은 생식의 필요로부터도 자유로워져 생식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 대신 사랑이라는 욕망의 능력까지 갖게 된 로봇은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재생산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을 획득합니다.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게 된 거죠. 명백히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탄생과 반란의 알레고리인 이 로봇 이야기의 메시지는 프롤레타리아는 기계제 대공업이 탄생시킨 노동 기계의 지적 지절(支節)에 다름 아니라는 것, 노동의 능력과 욕망의 능력, 사회적 생산과 생물학적 생산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기계의 진화
기계체와 유기체, 기계와 욕망의 외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실마리는 다시 19 세기로 돌아와 사뮤엘 버틀러 Samuel Buteler 의 『에르혼 Erewhon』(187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nowhere'(유토피아)를 뒤집은(wh 는 그대로 두고)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현실 세계의 제 관계가 역전된 가상 세계로의 모험을 담은 소설입니다. 이 대칭적 역전의 상상력은 1 장 「기계의 책」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 마디로 '기계의 진화'입니다. 그에 따르면, 종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기계 역시 진화합니다. 기계의 생존과 변이에 작용하는 환경은 인간이 됩니다. 증기기관은 인간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석탄이라는 영양분을 얻습니다.

▲ 기계의 신체
이런 과감한 비유는 전통적인 생기론의 입장, '기계는 유기체의 확장일 따름이다'라는 관점을 진화론적 상상력으로 밀고 나간 것입니다. 지렛대는 팔의 확장이며, 현미경과 망원경은 눈의 확장이며, 기차는 다리의 확장이며, 지능기계(오늘날의 컴퓨터)는 뇌의 확장입니다. 생물학이 유기체를 기능들의 통일체로 규정한다면, 기능의 확장인 기계 역시 유기체를 구성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렛대, 안경, 현미경, 기차, 동력기계, 컴퓨터 등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기체의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기체 경계의 소멸
이렇게 '기계는 유기체의 기능적 확장'이라는 생기론의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감으로써 버틀러는 유기체의 개체적 통일성을 파괴해 버립니다. 기계를 유기체의 확장된 기관으로 보는 순간 생물학적 단위로서의 개체와 외부 환경(기계) 사이의 경계, 즉 '막'(幕)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체는 더 이상 피부를 경계로 안과 바깥으로 나뉠 수 없게 됩니다. 컴퓨터 앞에서 자판을 두들기고 있는 지금 저의 신체는 손가락 끝이 아니라 컴퓨터까지 연장되어야 합니다. 아니, 컴퓨터의 코드가 연결된 에너지 공급 장치, 그 동력기계와 연결된 발전소, 그 발전소의 기계를 구성하거나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또다른 기계들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유기체의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신체란 자판기를 두들기거나 운전을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는 순간 그 활동에 연결되는 기계들의 배치에 의해 규정됩니다.

※ 참고자료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호프만의 『모래남자』
『프랑켄슈타인』(메리 셸리, 황금가지, 2004)
『모래남자』(E.T.A 호프만, 사회평론, 2000)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호프만의 『모래남자』는 기계에 생명의 기능적인 통일성을 인공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작품에서 보여 지는 공통된 갈등의 주제는 생식과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계적인 구성체는 인간의 기능을 흉내 낼 수는 있어도 생식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이 두 작품은 생명체의 고유한 본성과 기계와의 구분을 자기형성과 재생산, 즉 생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9 세기 후반의 자동기계인형들은 이에 대해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4) 칼 맑스, 김호균 역,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백의, 2000, 369 쪽.
"자본의 생산과정에 수용되면 노동 수단은 상이한 형태 변환을 거치는데, 이것의 마지막이 기계이거나 또는 차라리 자동장치(Automat)에 의해, 자동으로 운동하는 동력에 의해 운동시켜지는 자동 기계류 체계(기계류의 체계, 자동적 체계는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기계류 형태이고 기계류를 비로소 하나의 체계로 변환시킨다)이다. 이 자동장치가 다수의 기계적이고 이지적인 기관(器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노동자들 자신은 그것의 의식적 관절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